

# 대쪽보다 더 단단했던 대추씨 선생

김광일 \*

## I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한 것들이 너무나 배반을 많이 하는 세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김현승 선생이 사셨던 곳 옆에는 교회가 있고,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시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림동 주민들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다고 합니다.

광주 무등산에는 ‘눈물’이라는 시비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여기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란 대목은 1994년 동인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박완서 씨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라는 단편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김용택 시인의 ‘그 남자네 집’이란 시 제목을 빌어와 작품을 쓰기도 했고,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광주 남구 구청장은 황일봉 이라는 분입니다. 문병란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 분과 아는 사이인 고정희 시인은 다정다감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

---

\* 조선일보 기자

이가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광주 지산동 농장다리 아래에서 살 때였습니다.  
고정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태산목 흰 꽃 향기 돌담 밑을 돌아가다/ 일봉이 품에 절은 땀냄새와 마주쳐/ 태산목 흰 꽃 향기 돌담 밑을 돌아가다/ 일봉이 고달픈 두 다리와 마주쳐/ 태산목 흰 꽃 향기 돌담 밑을 돌아가다/ 일봉이 높다란 두 귀와 마주쳐/ 태산목 흰 꽃 향기 돌담 밑을 돌아가다/ 일봉, 우산대에 찢려 달아난/ 일봉의 외딴눈과 마주쳐/ 일봉이 외딴눈 그 반짝이는 눈/ 일봉이 외딴눈 그 머나먼 깊이/ 일봉이 외딴눈 그 섬짓한 상징/ 일봉이 외딴눈 그 반쪽의 설움/ 일봉이 외딴눈 그 시퍼런 칼날/ 일봉이 외딴눈 돌아흐르는/ 남도별 치맛자락 적시는 눈물/ 태산목 흰 꽃향기 돌담밑을 지나다가/ 일봉의 폭발적인/ 가슴과 마주쳐/ 일봉이의 기나긴 가슴과 마주쳐’

‘신(新) 연가 (3)’란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일봉’, 아니 ‘일봉’의 외딴눈입니다. 문병란 시인과 황일봉 씨는 1977년 어느 날 밤, 정체 불명의 사나이 4명과 시비를 벌이다가 황일봉 씨는 우산대에 찢려 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병란 시인은 머리 정수리가 찢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반체제 시인에 대한 완벽한 테러였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학기림회 지음 ‘내가 뭐 논문감이 되나’ 중에서)

그 황일봉 씨가 청장으로 있는 남구청에서 다형문학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를 대상으로 주는 상이 될 것이며, 재정적인 지원은 남구청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회원이란 작가가 있다. 회화 전시회를 작년에 열기도 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평판을 얻고 있는 분인데, 양림동 출신 문인들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도 실린 이수복 시인이나, 김현승 선생 같은 분입니다.

‘양림동’은 ‘햇볕 드는 숲’이란 뜻이라고 돼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버들양자에 수풀림자가 맞습니다. 김윤식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군데군데 칠도 벗겨지고, 손가락으로 훑으면 먼지가 묻어나올 것 같은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보인다. 아주 선명하지도 않고 아주 흐릿하지도 않은 골목길, 그리고 노란 백열등 빛이 새 나오는 집들과 가로등,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달…”

이라고 현지 신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오래된 동네인 양림동은 광주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그 양림동의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헐리고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희원 작가는 2005년 1월28일부터 2월1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서 열린 '오아시스, 광주' 전(展)을 열었습니다. “점점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도시 공간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을 찾아내고자 한 이 전시회에 그는 양림동 그림들을 걸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 지상의 마지막 풍경을 향해 먼지 나는 거리며, 낡은 전봇대 사이로 보이는 퇴락한 골목길, 거의 쓰러져 가는 집들 사이로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의 누이와 형, 친구들이 걸었던 풍경 속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림동 헐려진 집들 사이를 하루 종일 걸으며 한씨는 버려진 창틀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그 창틀로 보았을 풍경들을 생각하며 창틀을 액자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곳은 김현승 선생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산보를 하셨던 곳입니다.

양림동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근대 광주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 바로 양림동입니다. 배를 타고 광주천을 따라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터를 잡으면서, 빨리 개화되었고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거쳐갔습니다.

한국 시단의 대표적인 시인 김현승과, 『징소리』의 작가 문순태, 드라마 「첫사랑」, 「회전목마」 등을 썼던 방송작가 조소혜, 「사평역에서」의 시인 광재구, 전통적 서정세계를 노래한 「봄비」의 시인 이수복 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현승 선생이 사셨던 그곳이 지금은 재개발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인 이성부 씨와 소설가 문순태 씨가 제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성부 씨와 문순태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김현승 선생을 찾아가 뵙고, 나중에 현대 문학에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곳 광주에서 김현승 선생은 교유관계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하고도 깊게 사귀지 않았습니니다. 광주에서 외로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주 문인들과 잦은 교류를 갖지도 않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작품에만 전념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은 되도록 외면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 문인들의, 약간의 시기도 있었지 않았을까, 나중에 생각해볼게 된다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현승 선생은 주로 제자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문병란, 손광은, 진현성, 이성부, 문순태, 박봉우 같은 문인들입니다.

김현승 선생이 조선대에 계실 때 이성부, 문순태 같은 고등학생 제자들을 데리고 숲을 거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방에 데리고 가서 차를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쪽같고, 아무나 하고 교유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김현승 선생은 영어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양림동 자택에 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영어 원전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네들도 시학을 꼭 읽어보라”, 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외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고독은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절대 고독’이란 시집을 낼 무렵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고독에 더 많이 기울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으로부터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절대 고독을 말합니다.

김현승 선생은 술은 절대로 안 마셨습니다. 거의 한 방울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오로지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면 손수 끓여 주었습니다. 늦대 대접으로 마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커피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먼 거리에 있는 다방도 꼭 찾아 다녔습니다. 광주에는 ‘신성다방’이라고, 제일 극장 옆에 있는 곳을 즐겨 찾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는 주로 문학 얘기, 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다른 말씀은 잘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를 써 가지고, 대학 노트를 갖다 주시면,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 뵈는 제자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도 “시어를 잘 골라 쓰게, 압축을 더 하게.”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이성부 시인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현승 선생은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당 서정주와 허물없이 지낼만큼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당이 정치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동리 선생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김현승 선생은 성격이 올곧고 누구와도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별명이 ‘대추씨’였습니다. 성격이 날카롭고 간간하고 사교성도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살가운 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아, 시인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고독한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갖는 시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 말입니다. 문학 행사가 있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울리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책을 보고, 외로움을 즐기고, 산책하며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탈속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본인이 숭실대에서 축구부 선수로 뛰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금슬이 참 좋다는 느낌을 주신 적은 별로 없었다, 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자택을 제자들이 그토록 문턱이 닳도록 찾아 다녔는데도 사모님을 직접 대면할 기회 또한 많지 않았다, 고 합니다. 사모님은 수피아 여고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김현승 선생 말년에 애인이 있으셨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으셨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6.25 전란이 있을 당시 미당에게 조선대 부교수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당은 조선대 문학부장인 장용건 씨의 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당이 사귄 사람들이 허백련, 김현승, 박흡, 이동주, 김남중, 천경자, 임자연 같은 분들입니다. 당시 미망인이었던 천경자 씨와 김현승 선생이 각별한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가 천경자 씨가 글로 쓴 김현승 선생에 대한 추억담입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  
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지금 읽으면 시의 그리움과 고독이 산뜻하게 승화된 일면, 연가(戀歌)가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는 <플라타너스>가 발표했던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초에 나는 엉뚱하게도 새파란 하늘 아래 푸른 넥타이가 팔랑거리는 듯한, 적이 신선하고도 모던한 감각으로 이 시를 받아들였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의 김현승 씨는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페루의 쿠스코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야마나 아르파처럼 순수했고 휴머니스트여서 작가와 작품은 다른 점도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다. 그 무렵 6.25 수복 이후 광주 역시 비 갠 다음 죽순 솟듯 다방이 많이 생겼었다. 젊고 가난한 시인과 화가 등은 터질 것같이 부푼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와 그저 다방에서 대화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광주 사람들 중에는 다방을 ‘타방 타방’하는 사람도 있어 ‘타방에서 만납시다.’고 잘 했고 나 역시 자칫하면 행복(幸福)을 ‘팽복’이라고 해 대화하는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또 매력(魅力)을 곧잘 ‘미력’이라고 하는 대가도 있었다.

“하하하 헛바닥이라고 하세요, 헛바닥. 췌바닥이라고 말고 하하하”

역시 다방에서 김현승 씨가 낭랑하게 웃었을 때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도 워낙 그 분이 (적어도 나에게만은) 관대했고 휴머니스트였기에 부끄럽지가 않았었다.

김현승 씨는 커피를 무척이나 즐기는 대신 술과 담배를 못했다.

시장할 때는 으레 빵집을 드나들 게 되는데 서로가 빵을 씹는 분위기관 역전 식당에서 후적후적 천하게 설렁탕을 먹는 것보다도 내게는 삭막하기도 했다.

그 시대에 화폐 개혁이 되어 일시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을 때 헌돈조차 없는 우리 집엔 쌀이 떨어졌었다.

어느 날 저녁, 예쁘장한 중학생이 쌀자루를 메고 찾아와서 "아버지가 갖다 드리래요." 한다.

김현승 씨는 아들에게 쌀자루를 메이고 뒤따라와 세 얻어 사는 우리 집을 가리켜 들여보내곤 캄캄한 밖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빈손으로 나온 아들 모습에 마음을 놓으며 "받더냐?" 고 물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도 웅색하게 사니까 보다 못했던지 한 해 전에 내가 선물했던 수국 그림을 돌려주면서, 우선 팔아 쓰라고도 했다. 환경이 나를 어지간히 암체로 만들었던가. 나는 그 그림까지 받아서 팔아먹었다.

'먼 길에 올 제/ 호울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이젠 알 것 같다. 내 나이 오십이 넘어서도 깨닫지 못했던 김현승 씨의 절대 고독과 견고한 고독의 경지를 말이다. 그분은 이미 삼십 대에 다 깨달았던 것이고 그 숭고한 차원에서 못 속물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지금은 타계하고 없는 김현승 씨, 무척이나 나에게 잘해 주었지만 하나도 보답을 못한 터에 겹쳐서, 이런 글까지 써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어쩔까 염려가 된다.'

김현승 선생은 고등학생 제자들을 다방에 데리고 가면 칼피스(사이다맛 나는 음료수)를 사 주시면서, "이게 첫사랑 맛이다"고, 그 특 쏘는 맛을 표현해주곤 하셨습니다. 옛날에 김현승 선생 댁이 수피아 여고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숲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피아 여고 숲은 좋습니다만... 조선대 농대 숲도 좋았다고 합니다. 김현승 선생은 제자들을 그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문학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승 선생의 일화 중에는 박흡 씨와 '한판 승부'가 있습니다. 동인지를 만들다 싸움이 벌어져 어떤 건물 안에서 발길질과 멱살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복도에서 박흡 시인과 김현승 시인이 대판 싸움을 벌인 일화입니다.

김현승 선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잡문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에세이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시 쓰고, 강의 하고 사셨습니다.

## II

김현승 선생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이른바 ‘수색 사단’의 시대가 열립니다. 김현승 선생이 수색에 사셨는데, ‘수색 사단’이란 그때 교류했던 제자와 후배들을 일컫습니다. 광주에 문병란, 임보, 노향림 씨 등이 김현승 선생의 주변에 있으면서 어울렸다면, 서울에는 김종해와 이근배 씨 등이 같이 어울렸다고 합니다.

서울의 ‘수색 사단’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전성시대였습니다. 같이 어울려 커피도 마시고, 화투도 쳤는데, 김현승 선생이 끼어드는 화투판은 주로 ‘시켰다’였다고 합니다. ‘시켰다’는 그 분 댁에 모여든 시인들이 하는 놀이였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작년에 가보니 이미 헐리고 없었다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혹은 문학 외적으로 김현승 선생을 이해하고 싶을 때 미당 서정주와 대비해서 말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미당이 한국적이고 전통적이라면, 다형은 서구적 인상이고, 생활 습관도 다분히 기독교적인 데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미당이 막걸리 타입이라면, 김현승 선생은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꼬장꼬장하고, 맑고, 그런 인품이었습니다. 원칙론자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분을 알았는데, ‘대추씨’라는 별명은 “땀땀하고 타협을 모르는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태어난 곳이 평양일 뿐, 어린 시절부터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셨습니다. 목회를 평양서 보시다가 광주에 양림교회를 세우고, 그곳서 초대 목사를 지내셨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중학교까지 광주에서 보내고, 그 이후에 서울 숭실대로 진학했습니다. 해방 전에 광주



에 내려와 송일중학교 초대 교감으로 부임했습니다. 1950년대 광주에서 조선대 교수로 부임했고, 1960년대 들어 서울 송실대 교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김현승 선생은 집을 광주에 두고, 송실대가 있는 상도동과 신촌에서 하숙을 했다. 그리고 1년 뒤 광주 집을 처분해서, 수색에 등지를 틀고 서울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수색에서 사셨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패거리로 어울릴 줄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휩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도 거의 없었고, 오로지 후배와 제자 시인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김수영 시인과 의기투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수영 선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김현승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문단 쪽으로 나를 옹호했던 사람이 빨리 죽거나 그런다.”

신인 시절 서로 좋아하고 사귀었던 김기림과 정지용이 월북했는데, 그것 까지도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빗대서 말한다면, 김수영과는 문학적 의기가 투합된 사이였다면 미당과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것이 제자들의 추억담입니다.

문단 쪽으로는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인협회 부이사장, 시분과 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때가 김동리 선생이 이사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현승 선생이 광주에 있을 때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분께 통보를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시인협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조지훈, 박목월 씨 등이라고 합니다. 김현승 선생이 수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은 김수영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는 “문학상 거부의 효시”가 아닌가 합니다.

다형 김현승 선생이 민주화 운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심정적으로, 광주에서나 서울에 있을 때나 군부 독재에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정의파였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삶의 기본 축으로 강조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구명 운동을 앞장서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문서로 의견을 묻거나 하면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것 역시 대단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다형 김현승 선생이 술, 담배를 전혀 하지는 못하시지만, 술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술집에 데리고 가서 술값을 대신 내주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박봉우 같은 시인이 그랬습니다.

김현승 선생의 부인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지금은 미국에 사십니다.

김현승 선생은 서울에서도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마니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분을 ‘문학 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창구장이나 서울 운동장에서 빅게임이 있을 때는 구경을 꼭 가셨습니다. 축구 이론도 해박하셨습니다.

1969년인가, 1970년인가에 문인협회 주관으로 문인들의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인팀과 산문팀(소설+평론)으로 나뉘었고, 다시 노장팀과 소장팀으로 나뉘어, 두 게임을 벌였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노장팀으로 뛰었는데, 귀하게 얻은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당시 이동주 선생도 수색에 사셨는데, 축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페널티킥을 놓치는 법이 어딤나!”, 라면서 김현승 선생을 놀렸습니다. 김현승 선생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월드컵 축구도 못 봤나. 평소에 잘 차는 사람일수록 실축을 하는 법이야.”

김현승 선생은 탁구도 즐겨했습니다. 이대 입구에서 하숙을 할 때 탁구장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파트너는 이성부 시인이었습니다.

물론 커피에 관해서라면 유아독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면 직접 커피를 끓였고, 물어보지도 않고 설탕을 알아서 타셨습니다. 지식산업사에서 나온 산문집 ‘고독과 시’에 커피에 관한 글이 몇 편 있습니다.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만 나면 불원천리를 마다 않고 맛보러 가셨습니다. 서울서 자주 다녔던 다방은 무교동 맘모스 다방, 그리고 서울역 그릴이었습니다.

다형 김현승 선생의 추천을 받고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온 시인으로는 주명영, 임보, 박홍원, 낭승만, 이성부, 김대환, 정현용, 문병란, 김광희, 박봉섭, 최학규, 손광은, 이기원, 김규화, 정의홍, 최만철, 권영주, 조남기, 오규원, 박경석, 이환용, 이운룡, 이생진, 박정우, 이병석, 진현성, 강우성, 오경남, 문순태, 진을주, 김충남, 이병기 등 32명이 조사돼 있습니다.